

##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지식과 태도

권혁태, 강지호, 심병택, 서혜숙, 조비룡, 윤영호\*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, \*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

**연구배경:**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. 암성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. 암성통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70% 이상에서 잘 조절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0~70%의 환자들이 적절한 통증조절을 받지 못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완화의학을 담당하게 될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를 통해 암성통증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교육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**방법:** 2002년 5월 현재 전국의 가정의학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 중 대한가정의학회에 이메일주소가 정확하게 등재되어있는 전공의 475명을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.

**결과:** 현재 진료환경에서 적절한 암성통증 관리에 가장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의료인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(39.3%), 부적절한 통증의 평가(15.4%), 전문적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 부족(14.5%)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,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데 주저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1명(51.2%)이었으며 그 이유(복수선택가능)로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(49명), 지식의 부족(43명), 내성의 위험(30명), 중독의 위험(29명) 등을 꼽았다. 암성통증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총 14개의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8.57개의 정답률을 보였고, 이는 암성통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유무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 $P=0.032$ ).

**결론:** 의사들, 특히 실제적으로 말기암환자들을 많이 돌보게 될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. 향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보다 대규모의 연구와,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.

**중심단어:** 암성통증, 통증관리, 전공의, 지식, 태도, 가정의